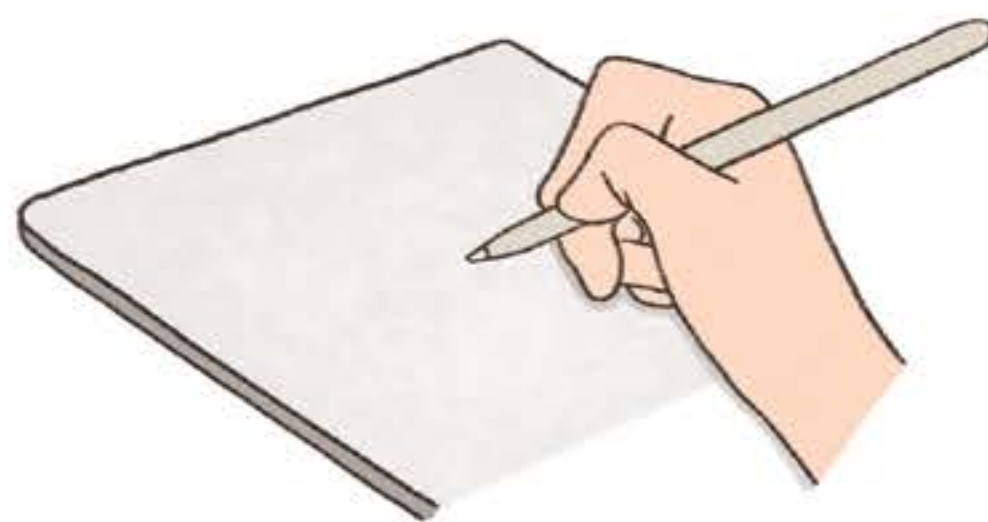


프롤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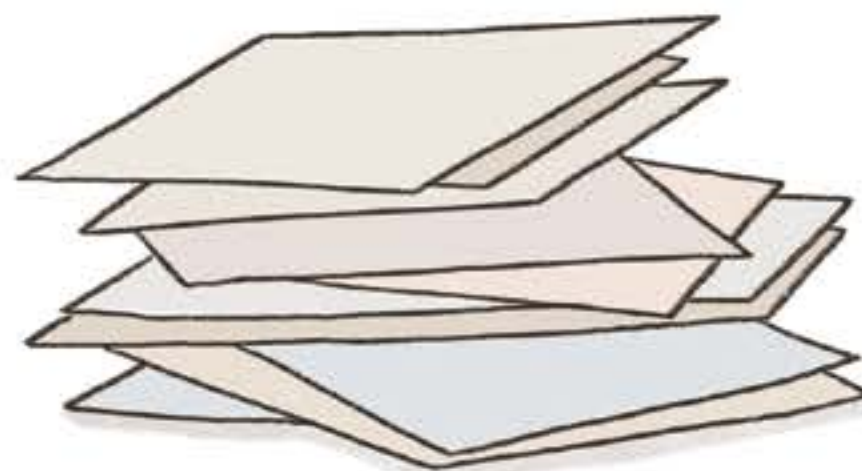
2019년 7월
나는 우울감 때문에 아이패드를 샀다.



그림일기가 자존감 회복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뚜렷한 취향도, 색깔도 없는 것 같아
고민하던 때였다.



매일은 아니어도 꾸준히 내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했다.



단단한 정체성을 찾고 싶어
나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데도 몰두해봤다.



그저 우울감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본 것뿐이었는데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이 책은 그 기록의 시작이자 과정이다.



이제는 우울감보다, 기대감으로
일상을 기록하는 날이 더 많아졌다.



아직 만나보지 못한
더 찬란한 세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의 기록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기록의 씨앗이 될 수 있길.



내가 만났던 새로운 세계는
사실 '나'였음을.

벅찬 깨달음을 함께 마주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Contents

프롤로그

Part 1

오늘도 취향 하나를 더하는 일

취향이 가난하다 느껴질 때

궁상맞은 습관

취미가 뭐예요?

오래된 친구들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

좋은 음식을 위해 필요한 것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여행

감기약 설명서에 필요한 한마디

퇴사 다음 날, 가장 먼저 한 일

망쳐도 망친 그림을 그린 내가 남겠지

작은 창 대신 큰 창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

Part 2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요

도망회고록

나의 파스타 연대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잘 사는 기분

버스 기사님들을 통해 배운 것

요리에 담긴 마음

호랑이가 무섭지 않은 어른

말이 사라진 자리에

나를 아낀다는 것

칭찬을 모읍니다

변화하지 않기 위한 변화

Part 3

취향 찾기를 멈추지 마세요

아이마다 속도가 다를 뿐입니다
완벽하게 타이핑된 인생은 없으니까
취향과 돈은 비례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친절
반짝반짝 빛나던 빛자국을 찾아서
단출함의 풍요

풍경을 추억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와 -의 세계

하는 사람

여행이 살아보는 거라면

Part 4

앞으로도 취향은 계속될 테니까요

누군가의 취향을 들여다보는 일

마음이 부자라서 괜찮아

내 취향은 별 게 아닌데

17년 된 샤프에 대한 단상

잡념에 집념하지 않을 것

숲보다 나무를 보는 사람

책 읽는 내 모습이 좋아서

굳은살을 만들어가는 삶

취향의 발견

재미있게 살다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

무채색 인간

이런 것도 취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에필로그

Part 1

오늘도 취향 하나를 더하는 일



취향이 가난하다 느껴질 때

종각 이자카야였다. 내 취향의 가난함이 여실히 드러났던 곳.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 함께했던 사람들, 장소, 분위기까지 또렷이 기억난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고 대화가 무르익었을 무렵, 누군가 질문을 던졌다.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이토록 쉬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한 건 나뿐이었다. 모두 저마다의 인생 영화를 꺼내놓으며 그 영화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나만 초조했다. “음. 뭐였더라.

나도 좋아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어색한 웃음으로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화제는 어느 순간 음악으로 건너갔다. “어떤 가수 제일 좋아해?”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만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혼하디 혼한 취향 질문에 멋들어진 답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화장실로, 맥주잔 속으로, 과장된 웃음으로 자꾸만 도망쳤다.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이 정말 없었을까? 아니다. 분명 있었다. 다만, 부끄러웠다. 좋아하는 장르들은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데 “나 이거 진짜 좋아해!”라고 힘주어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았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당시에는 제대로 된 영화나 음악을 가까이 두지 못하는 편이기도 했다. 물론

예전에 보고 들었던 감명 깊은 콘텐츠를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오랫동안 멀리 두고 지내다 보면 정말 생각이 잘 안 나질 않나. 그래서 어쭙잖게 이야기 하느니 그냥 안 하는 편이 낫겠다 싶었다.

좋아하는 책이나 작가를 물었다면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최근에 어떤 문장을 읽고 마음이 쿵 내려앉았는지, 휴대폰 메모장에 어떤 글귀를 적어두고 다니는지, 어떤 작가의 글이 나랑 잘 맞는지 물어줬다면 분명 신나게 떠들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나와 맞지 않는 취향 질문 앞에서 마치 가난한 취향을 가진 사람 마냥 자꾸만 위축됐다.

지금에서야 “나는 영화나 음악도 좋지만 책에 더 감동을 많이 느끼는 편이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도, 그렇게 이야기 해도 되는 줄도 몰랐다. 인생 영화가 별로 없으니

추천해 달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취향을 귀담아듣고 내 취향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줬다면 나는 그날을 풍요로운 대화가 오갔던 자리로 기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못내 아쉽다.

하지만 부끄러운 경험이었다고 해서 필히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자극들 덕분에 내가 가진 취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니까. 취향이 가난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했다. 반짝이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취향’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지 몰랐고, 그것들을 드러내는 방법에도 어리숙했던 것이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분야라고 해서 나 역시 좋아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영화나 음악에 대한 질문은 지금도 종종 모임에

서 주고받는 단골 질문이다. 이제는 그런 질문이 반갑다. 팔레트에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 물감을 짜 놓고 다채로운 색으로 섞어 우리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자연스럽게 물드는 조화로운 분위기에 늘 심취한다. 스스로 발견하고 찾아가는 취향도 좋지만, 사람들 속에서 피어나는 취향지도 안에서 탐험을 해 보는 것도 색다른 묘미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이라면 실패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취향에 ‘초라함’이라는 딱지는 붙이지 말 것. 때로는 취향이 없을 수 있음을 받아들일 것.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 빌린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색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될 수도 있으니 질문을 주고받는 것에 쪽 마음을 열어둔 채 살아가고 싶다. 취향에 정답은 없으니까.



내가 가진 건
무채색 물감밖에 없다고 고민하던 때



다양한 색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색들이 다채롭게 섞이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다.



내가 가진 색도 누군가에겐
같은 기분으로 느껴졌겠지.



우리 모두의 색은 고유하니까.

고유하고 다르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라 믿는다

궁상맞은 습관

물건에 대한 취향을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으로 나눈다면 나는 맥시멀리즘에 가깝다. 한때 곤도 마리에 작가의 책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열풍 탓에 물건을 좀 버려야 하나 싶은 적도 있었지만, 내게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 설레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 번번이 실패였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다.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받았던 탁상용 미니 수납장. 몸집이 커버린 내게 그 수납장은 손으로 열기에 벅찰 정도로 너무 작아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나를 똑

얇은 캐릭터 ‘트위티’가 환하게 그려져 있어 볼 때마다 웃음이 지어진다. 큰 물건은 넣을 수가 없어 버리기 아까운 추억의 물건들을 조금씩 넣어놨는데, 맨 아래 칸을 오래도록 차지하고 있는 건 열아홉 살 때 친구에게 받은 낙엽 편지다. 실제로 낙엽 위에다 편지를 쓴 건데 놀랍게도 아직 바스러지지 않고 잘 보관되어 있다.

초등학생 때 분신처럼 갖고 다니던 다마고치도 여전히 서랍 속에 있다. 사춘기 시절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라 하기도 애매한 시답장은 쪽지들도, 고등학교 때 교과서보다 먼저 챙겼던 엠피스리 플레이어도, 스무 살에 처음 가졌던 납작한 휴대폰도 여전히 작동이 잘될 만큼 최상의 상태로 보관 중이다. 얼마 전에는 고향집을 내려갔다가 어릴 때 입던 분홍색 키티 잠옷을 발견했다. 잠옷을 펼쳐 들고 엄마, 아빠랑 어찌나 한참을 웃었던지. 그리

고 덧붙여진 엄마 말이 더 가관이다.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 놔라이.”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잘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습성은 사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마 화장대 주변을 잘 살펴보면 어릴 때 언니와 내가 반성문이랍시고 썼던 꼬깃꼬깃한 편지들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빠는 옛날 돈, 승차권, 전화번호부, 오래된 책들을 마치 박물관 유물처럼 보관하신다.

물건을 잘 버리지 않는 사람을 보고 ‘지지리 궁상맞다’고들 표현한다. 우리 가족은 궁상맞은 것일까? ‘궁상맞다’의 사전적 의미는 께죄죄하고 초라하다는 뜻인데 물건 자체가 께죄죄할 순 있어도 초라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초라할 리 없고 그 마음이 물건에도 고스란히 깃들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가

죽이 가진 물건에 대한 취향이 애뜻하다.

맥시멀리즘에 물건을 잘 버리지 않는 습성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 물건이나 사들이고 쌓아둔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한번 내 손에 들어온 물건들은 쉽게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살 때도 나름 꽤 신중한 편이다. 나를 오래도록 설레게 하는 물건들로 맥시멀리즘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라고나 할까. 곤도 마리에 작가가 내 글을 본다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시절을 함께한 물건이 남아있어야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걸 어떡하나. 타임머신이 개발되기 전까진 손때 묻은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추억 여행을 떠나는 수밖에. 공상맞다 해도 그게 내 취향인 것을.

우리 집에는
40년 된 술잔이 있다.



친할머니 유품 중 하나였다.



아빠는 집에서 술을 드실 때면
꼭 그 잔에 술을 따라드시는데



한 잔씩 기울일 때마다
꼭 덧붙이는 말이 있다.



엄마를 일찍 여윈 아들이 오래도록
엄마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방법 아닐까.



물건에 마음을 담아두는
아빠의 취향이 나는 참으로 좋다.



누군가는 물건을 통해 위로받기도 하니까

취미가 뭐예요?

언젠가 덕후들이 주목을 받던 즈음 나는 몹시도 우울했다. 누구는 뚜렷한 취미도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서른인데 취미로 돈을 버는 덕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니. 무색무취 인간으로 살아온 게 사회 탓은 아니지만 나는 끊임없이 주변 탓을 하곤 했었다. 회사 때문에 일하느라 바빠서, 취미에 쓸 돈이 없어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바빠서. 그냥, 이런 나라서.

당시 다니던 회사의 많은 사람들이 개성이 뚜렷해서 더욱 비교를 했던 건지도 모른다. 나랑 똑같

이 일하고 야근도 하면서 어쩔 저렇게 취미로 자기 계발까지 똑 부러지게 하는 걸까. 대체 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고 시샘하기도 했던 그때, 나의 푸념을 따스하게 들어준 동료が 있었다.

“저는 전공이 디자인이라 개성 강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런데 개성이 강하다는 게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세계에 오래 갇히다 보니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됐거든요. 전 오히려 매니저님이 부러워요. 뚜렷한 취미가 없다고 하시지만 분명 좋아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잖아요. 저는 혼자만의 세계에서 저랑만 대화하기 바빴는데 매니저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많은 것들과 공감을 해 온 삶이니, 꼭 손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남들과 굳이 비교할 필요 없다는 단순한 메시지였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어찌나 위로되던지, 택시 안에서 나눴던 대화의 온기가 아직도 마음 한편에 머물러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무색무취를 조금씩 받아들이어 보기로 했다. 비교로 얼룩진 삶을 청산하고 오롯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인 채 지내보기로 한 것이다.

책을 좋아해서 책을 자주 읽었다. 내가 좋아하는 장르와 작가들의 책으로만 잔뜩. 좋은 글귀는 가끔 SNS에 올리기도 했지만, 나의 감상은 주로 내 일기장에 빼곡하게 채워졌다. 오랫동안 힐끗거리기만 했던 그림을 배워 보기도 했다. 거창하게 무언가 되어보겠다는 욕심을 버린 채 그냥 하루에 하나씩, 혹은 마음이 갈 때마다 하나씩 그려 나갔다. 글도 꾸준히 썼다. 취미라고 말하기 위한 취미가 아닌, 그냥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조금씩 꺼내

윤기를 잃지 않도록 살뜰히 가꾸어 나갔다.

그랬더니 나에게도 몰랐던 에너지가 생겨나는 순간이 정말 찾아왔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남은 에너지로 취향을 가꾸는 게 아니라, 취향을 가꾸다 보니 에너지가 생기는 거였구나.’ 없는 줄 알고 지내왔지만 사실은 방치해 두고 있었던 내 소중한 취향들. 비록 여전히 희미한 색이지만 아무렴 어쩐가. 이제부터라도 내 취향들이 그 자체로 더욱 오래 윤기 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주고 시간을 쏟아볼 셈이다. 금방 사라질 한 줌의 취향이라도.



내겐 너무 소중한 한 줌이니까

오래된 친구들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이 곁에 없으면 늘 불안했다. 수학여행 버스는 꼭 친구와 함께 앉아 가야 했고 혼자 급식을 먹는 건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등하굣길조차도 늘 친구와 함께 했으니 인생의 3분의 1은 친구들과 함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일 붙어 있다 보니 따라 하기도 참 많이 따라 했다. 글씨를 예쁘게 쓰는 친구가 있으면 유심히 지켜본 뒤 내 글씨체도 은근히 따라 바꿨고 학용품, 머리 모양, 옷 입는 모양새까지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모방했던 것 같다.

요즘은 스마트폰 덕분에 세계 각국 또래들의 일
상까지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내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직접 눈 마주치고 침 튀기며 이야기를 나
누는 현실 친구들만이 세상의 전부였기에 서로 스
며드는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뚜렷한 자아가
생기기 전이라는 점도 한몫했을 테고.

시간이 훌쩍 흘러버린 탓에 기억에 남는 친구들
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한 친구의 습관
만큼은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키도 크고 얼굴
도 예쁜데 공부까지 잘하고, 심지어 착하기도 해
많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던 친구. 나는 하나도
갖기 힘든 걸, 모두 갖고 있다니. 세상 참 불공평하
다 싶었다. 어쨌든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그 친구
를 좋아했고 선망했다. 분명 나랑 비슷한 디자인의
안경을 쓰고 있는데도 느낌이 다르고 안경을 추어
올리는 손동작마저 우아해 보였다. 왜 똑같은 옷

을 입고 같은 행동을 해도 특유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 친구가 딱 그런 케이스였다. 같은 교복, 같은 체육복을 입어도 유독 세련돼 보였던 친구.

필체도 참 예뻐다. 요즘처럼 캘리그라피가 흔하던 시대는 아니었는데 어썸 글씨를 그렇게도 예쁘게 쓰던지. 그 친구의 필체를 따라 하기 위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빼곡하게 글씨 연습을 했던 연습장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얼마나 지독하게 연습했는지 지금도 따라 쓸 수 있을 정도다. 반이 바뀌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나가면서 모방의 대상도 해마다 달라지곤 했지만, 나는 대체로 글씨를 예쁘게 쓰거나 자신만의 세계가 뚜렷해 보이는 친구들을 좋아했다. 그 때문인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친구들의 습관과 취향이 여전히 내 몸 어딘가에 저마다의 문신으로 남아있는 기분이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 예기치 않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친구가 좋아했던 향의 바디로션을 낫선 사람에게서 우연히 맡았을 때, 내가 따라 하던 필체를 어느 문방구의 테스트 종이에서 봤을 때, 친구와 함께 가사를 외위하며 따라 부르던 그 시절 노래를 길거리에서 마주했을 때. 찰나의 순간이지만 여운이 길게 남아 한동안은 친구들이 무척이나 그리워지곤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들이 떠오를 때면 나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종이 위에 하나씩 써 본다.

머릿속으로 이름을 떠올렸을 땐 그저 과거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한 글자씩 써 두고 보니 친구들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진다. 알고 지낸 시간보다 연락이 끊어진 시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일까. 이제는 친구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선명하게 다

가오는 기분이다. 미성숙했던 시절, 나의 정체성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줬던 착한 친구들. 펜으
로 적어둔 이름을 손으로 괜히 하나씩 만져보며 친
구들에게 조용히 안부를 건네 본다.

나에게 반짝이는 순간들을 거리낌 없이 나눠줘
서 진심으로 고마웠어.



연락이 끊긴 친구들 생각이
가끔 난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나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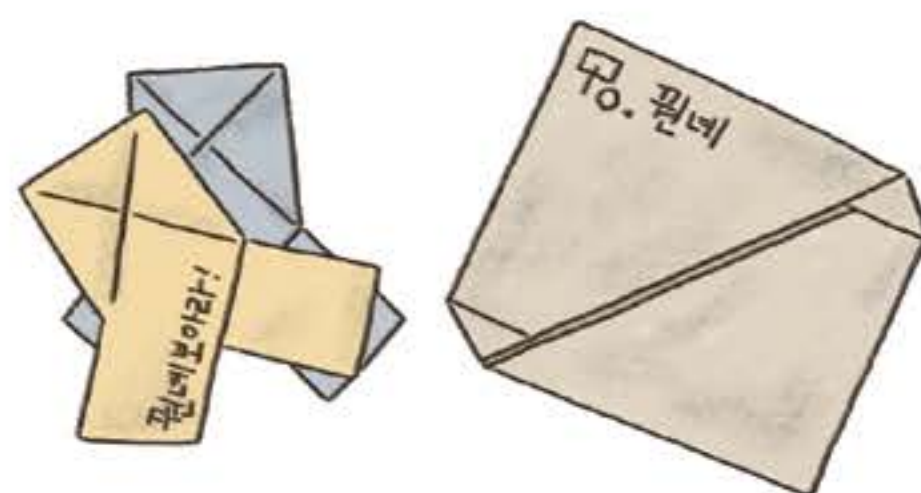
친절히 공부를 알려주던 친구

내가 이상한 개그를 던져도



한결같이 웃어주고 받아주던 친구

무슨 할말이 그렇게 많았는지



매일 쪽지를 주고 받으며
킁킁대던 친구

비록 지금은 곁에 없지만,
안부조차 알수 없을 정도로 멀어져버렸지만



우연히라도 만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그때 나랑 친구 해줘서
고마웠어.

추억이 남아있어 참 다행이야

BEST REVIEW

베스트리뷰

독자가 말해주는
〈취향의 기쁨〉을 읽어야 하는 이유!

참 따뜻하고 사랑스럽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외로운 날들의 이야기마저 담백하고 세심한 위로를 담고 있다. 단순히 작가의 취향을 엿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로부터 응원과 온기를 나눠 받는 기분이라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녀를 보며 얼마나 삶이 풍요롭게 느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생각을, 마음을 닮고 싶다. 나 역시 나를 건강하게 잘 가꾸고 싶다. 나만의 취향을 가꾸며,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고단하고 껍뻍한 일상 속에서 나를 구원할까. 새삼 내일이 기다려진다.

인스타그램 @maisie252 님의 리뷰

취향은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 하지만 단순하고 담백한 삶을 ‘향’하는 것도 나의 취향이다.

언제나 호기심과 엉뚱함을 가지고 내 삶에 다양한 색을 칠해볼 테지만 지금은 어지러웠던 마음의 어린 나에게 내가 가진 색 그대로가 내 취향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매일 쌓아올린 나날들로, 난 내 취향의 어른이 됐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고유한 취향이야.

인스타그램 @soptastes 님의 리뷰

억지로 누군가의 삶을 따라 하며 무리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없어 고민하는 시간이 더 나을 때도 있다. 그렇게 한걸음 한걸음 시작하는 거라고, 지금의 우리도 자신의 취향이 모이고 타인과의 사랑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좋아하는 것은 더 갈고닦고 싫은 부분은 잘라내도록 한다. 그러면서 나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다며 자신을 더 자주 보듬어주고 만나는 일. 그 재미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면 더 재미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읽었던 책이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내 곁에서 빛을 내주렴,
더 좋아진 나와 다시 만나자.

블로그 페브레로 님의 리뷰

https://blog.naver.com/febrero_/222544823714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취향'을 찾고 싶은 당신에게
- 남들의 취향만을 따라가다가, 진정한 자신의 색깔이 무엇인지 헷갈려 하는 당신에게
-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고 살아가던 당신에게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도서를 읽어본 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0% 환불해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필름북〉에서 확인하세요!**